

자연을 고스란히 담아낸 집

# 건축가 이장욱·홍진성 두 남자의 프리포즈

집은 로망이다. 정원을 꾸미고 아이를 위한 작은 그네를 달아주며 특별한 날에는 지인을 초대해 소박한 가든파티를 즐기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획일화된 아파트와 달리 자연에 가까운 집은 치유의 효과도 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년층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 큰 도움이 된다. GIP(Green Innovative Proposal)의 이장욱·홍진성 두 건축가가 만드는 집은 바로 그런 치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취재 도수라 기자 | 사진 양우영 기자 | 사진제공 (주)GIP(031-259-7520)





외관이 웅장하고 멋있는 집도 좋지만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편안함이다. 모든 허물을 벗고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받아주는 곳. 두 남자의 건축물이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유다. 값비싼 조경수를 심기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수목을 심을 줄 알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집 안에 들이기보다 자연스럽게 배치함으로써 편안한 집을 짓고 있다.

“집은 자고로 편안한 것이 최고”라는 젊은 건축가 이장욱, 홍진성 소장이 공동대표로 이끌어 가고 있는 GIP는 그들의 오랜 지론처럼 친환경과 건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건축사무소는 생각보다 더 ‘실전 모습 그대로’였다. 평소처럼 직원 모두 컴퓨터 모니터에 들어갈 기세로 설계도면을 살펴보고 있다. 역시 드라마는 잘 꾸며진 가상현실이라는 생각에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잠시 생각했던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장동건보다 더 매력 있는 이장욱, 홍진성 소장은 특유의 위트로 금세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 자연과 호흡하는 집

건축주의 개성이 반영된 디자인, 건강한 실내 환경,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우수한 내구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알려지며 친환경 주택 브랜드의 선두를 알린 GIP는 이제 겨우 시작한 지 3년이 된 신출내기 건축 브랜드다. 하지만 경력과 달리 이들은 건축계의 무서운 아이돌처럼 새로운 분야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아직 한국에 정착하지 못한 친환경 건축이 바로 이들의 주 전공이다.

“이름에 모든 의미가 담겨있듯 Green Innovative Proposal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주거환경 및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축 브랜드예요. 저희가 건축업계에서는 젊은 축에 들거든요. 그러니깐 GIP는 저희만의 강점으로 혁신적인 제안을 하고, 진취적인 고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홍진성)  
젊음을 필두로 대규모 건축물을 혁신적으로 건설하면 유명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왜

외관은 길게 팔을 뻗은 형상을 띤다. 건물의 아래 필로티 공간은 눈비를 피하면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바람이 술술 통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상했다.

이장욱 대표





거실은 독립하여 저수지 전망으로 배치하되 식당과 부엌은 넓은 마당과 통할 수 있도록 남북으로 길게 배치했다.

지붕 아래 공간을 두 개의 다락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공간을 제공한다.



하필 건축가들 사이에서 인기 없기로 유명한 주택을 짓는 것일까. 물론 건축가로 지내온 지난 세월 동안 빌딩을 지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남자라면' 크고 멋진 건물에 욕심을 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소장에게는 그래도 주택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큰 건축물에 욕심 난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주택의 경우 개개인을 상대해야 하고 직접 거주할 계획이다 보니 건축주가 굉장히 깐깐하게 진행하는 편이에요. 건축가들이 개인 주택을 가장 짓기 싫어하는 이유죠.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집을 한 채 한 채 완성할 때마다 쌓이는 내공이 일반 빌딩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이장욱)

작년 한 해 이 소장이 설계한 집은 총 20채다. 이렇게 다작을 하는 설계사가 드문데, 이유는 아이디어 고갈 때문이란다. 하지만 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주와 교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는 이 소장은 언제나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다.

“주택은 건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예요. 가장 오래된 건물 양식이기도 하고요. 원시시대에도 움막 같은 형태의 집이 있었잖아요.”(홍진성)

###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주택

최근 들어 주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중에도 GIP의 전공은 친환경 주택이다. 하지만 이 소장, 홍 소장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친환경 주택을 선호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삶을 사는데 이들은 자연에 동화되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자연을 모방하는 집이 아닌 자연과 호흡하는 집을 만들고 싶어요. 자연으로부터 얻은 천연 재료 그대로의 왕겨숯을 담은 생태 건축 단위패널 에코셀을 개발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자연을 억지로 찾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생활하는 사람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에코셀이예요.”(홍진성)

에코셀은 왕겨숯을 태워서 만든 패널로 벽체에 삽입해 단열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홍 소장은 약 1톤의 숯이 들어가니 실내의 유해한 공기가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습도 조절 기능도 뛰어나고 설명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 새집증후군과 같은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에코셀을 사용하면 특별히 아토피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에코셀 공법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이었다. 겨울만 되면 집집마다 난방비 때문에 비상이다. 내복을 껴입고, 창문마다 보온 장비를 덧붙인다. 그럼에도 난방비는 끝없는 상승 곡선을 그린다. 에코셀은 난방비를 60~85%까지 과격적으로 줄여 주니 짧은 두 창업가가 3년 만에 성공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를 토대로 GIP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부와 함께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농촌형 그린홈, 친환경 인증 제도 및 그린홈 인증 제도, 유비쿼터스 도시개발 등에 관련한 요소기술 및 실증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갈 길은 멀었어요. 한국의 경우 아직 환경을 내세운 건축사무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연에 있으면 평온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집에서도 편안함,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이장욱)  
 설계를 담당하는 이장욱 대표와 주로 현장을 담당하는 홍진성 대표는 외모부터 성격까지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집에 대한 신념만큼은 같다.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집, 건강한 주거환경을 기대하라고 선언하는 두 남자의 비상이 기대된다. Q



홍진성 대표

집의 순환을 위한 통로이자  
 갤러리처럼 꾸민 계단실

